

사회탐구 윤리와사상

1. 정답 : ④

해설 : 강연자는 밀에 해당한다. ④ 밀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① 밀은 유용성을 강조하는 공리주의자이다. ② 밀은 관행을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③ 칸트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밀은 질적으로 높은 쾌락과 낮은 쾌락을 구분하였다.

2. 정답 : ①

해설 : (가)는 증산교, (나)는 동학, (다)는 원불교의 주장이다. ㄱ. 근대의 신흥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서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증산교, 동학, 원불교 모두 신분 차별을 반대하였다. ㄷ. 원불교에만 해당한다. ㄹ. 근대의 신흥 종교는 사회 변혁을 주장하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백성의 열망을 반영하였다(후천개벽).

3.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며, 이상적 삶을 위한 수양 방법으로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할 것을 강조 하였다[심재(心齋)]. ① 불교에 대한 내용이다. ② 장자는 도덕적 규범이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③ 의(義)와 호연지기는 맹자에 대한 내용이다. ⑤ 순자에 대한 내용이다.

4. 정답 : ①

해설 : 제시문은 성리학자 주희의 주장이다. ① 주희는 타고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할 것을 강조하였다[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 ② 주희는 선지후행을 강조하였다. ③ 주희는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④ 정약용에 대한 내용이다. ⑤ 주희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치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추구해야한다고 보았다.

5. 정답 : ①

해설 : 갑은 스피노자, 을은 스토아 학파 사상가이다. ① 스피노자는 무한성과 영원성을 지닌 신은 세계 자체가 자연으로 보았다. ②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였다. ③ 스토아 학파는 우주 만물의 본질은 이성(理性, logos)이며,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 학파는 사회 참여를 인정하였다. ⑤ 스피노자, 스토아 학파 모두 자연의 질서는 필연적으로 보았다.

6. 정답 : ④

해설 : 갑은 맹자, 을은 순자에 해당한다. ④ 순자의 예는 고대의 성왕(聖王)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으로 사람들의 성정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다. ① 유가의 인은 준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사랑이다. ②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4단과 4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③ 순자는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化性起偽(화성기위)]을 강조하였다. ⑤ 순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7. 정답 : ③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ㄷ. 플라톤에 의하면 절제의 덕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질투, 절도)에는 중용이 없다.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ㄴ. 플라톤은 두

려워할 것들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관한 바른 소신(판단) 능력을 용기로 보았다.

8. 정답 : ③

해설 :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ㄴ. 이이, 이황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경(敬)의 태도 중 몸을 단정하게 하고 생각은 엄숙하게 하는 정제엄숙(整齊嚴肅)에 해당한다. ㄷ. 이이, 이황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 이황의경(敬)에 대한 설명이다. ㄱ. 성(誠)이 아닌 경에 대한 설명이다. ㄹ. 양지(良知)는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9. 정답 : ⑤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⑤ 정약용에 의하면 인간의 성(性)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 즉 기호라고 보았다[성기호설(性嗜好說)]. ① 정약용에 의하면 덕(德)은 형성되는 것이다. ② 정약용에 의하면 형구의 기호는 동물도 지니고 있다. ③ 정약용에 의하면 성(性)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④ 정약용은 성을 하늘의 이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10. 정답 : ②

해설 : 갑은 원효, 을은 의천이다. ② 원효의 화쟁(和靜)사상에 해당한다. ① 원효는 염불 수행을 장려하였다. ③ 간화선은 지눌에 대한 내용이다. ④ 선종, ⑤ 의천에 대한 내용이다.

11. 정답 : ④

해설 :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④ 칸트는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칙인 준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적합할 때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① 벤담은 인간의 행위는 고통과 쾌락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② 벤담은 동기가 아닌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 한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⑤ 벤담, 칸트 모두 자기 자신의 행복 증진은 도덕 원리 수립 근거가 아니라고 보았다.

12. 정답 : ②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하이데거이다. ㄱ. 키르케고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 단계를 거쳐 윤리적 실존 단계로 도약된다고 보았다. ㄷ. 하이데거는 죽음의 불안은 현존재가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ㄴ.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주관적이며 주체성을 가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한다고 보았다. ㄹ. 키르케고르는 신에게 귀의하는 종교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13. 정답 : ②

해설 :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② 로크에 의하면 자연 상태의 인간의 권리인 자연권은 불가침의 권리이다. ① 로크는 권력을 위임될 수 있고 분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③ 루소는 주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④ 루소는 사유 재산제를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⑤ 로크는 시민의 동의가 정치적 복종의 의무를 낳는다고 보았다.

14. 정답 : ①

해설 : 갑은 혜능, 을은 왕수인이다. ㄱ. 혜능은 다섯 가지 요소(오온)로 이루어진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ㄷ. 혜능은 타고난 불성(佛性)을 깨달으면, 왕수인은 타고난 양지(良知)를 발휘하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혜능, 왕수인 모두 이론적 학습을 거치지 않아도 진리를 깨달거나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왕수인은 사물 속이 아닌 마음속에만 이치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15. 정답 : ②

해설 : 갑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으며, 이성의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의 결여이며, 자유 의지를 남용한 것으로 보았지만 실체는 없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최상의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모두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지극한 복에 이른다고 보았다.

16. 정답 : ③

해설 : 갑은 나딩스, 을은 매킨타이어이다. ③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 과정에서 행위자의 성품(덕)과 인간 관계의 특수성을 중시한다. ① 나딩스는 낯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배려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② 나딩스에 의하면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를 근거로 삼는다. ④ 매킨타이어는 개인이 추구할 목적과 역할은 공동체로부터 부여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나딩스, 매킨타이어 모두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

17. 정답 : ③

해설 : 갑은 흄, 을은 흄스이다. ③ 흄스는 개인들이 이기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① 흄은 인과적 추론을 반복된 경험(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② 흄은 이성만으로는 정념이 지시하는 대로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④ 흄스는 국가(리바이어던)가 권력을 형성하는 합의를 유지시키기 위해 구속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⑤ 도덕을 초월적 존재의 명령으로 보는 것은(신명론) 그리스도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8. 정답 : ①

해설 : 갑은 노직, 을은 롤스이다. ① 노직은 과거의 행위나 상황이 현재 재화의 소유 권리를 정당화한다고 보았다. ② 노직은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재화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당하게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은 합의된 정의의 제2 원칙인 차등의 원칙으로 보장된다고 보았다. ④ 롤스는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관심이 있지만 알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⑤ 노직, 롤스 모두 절차의 공정성이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 정답 : ⑤

해설 : 갑은 고르기아스, 을은 소크라테스, 병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서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고르기아스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은 없다고 보았다. ②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고르기아스는 없다고 보았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박약 때문에 선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④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덕의 실천은 참된 앎만으로 가능하다.

20. 정답 : ⑤

해설 : 갑은 수정 자본주의자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이다. ⑤ 케인스, 하이에크 모두 개인의 자유,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를 인정한다. ① 케인스는 시장의 자연적 조화 기능이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②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③ 하이에크는 법적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민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다.